



고양인쇄문화
허브센터



종이 접고 달력 만들고! 내 손으로 경험하는 인쇄문화

+ 고양인쇄문화허브센터

가족사진으로 새해 달력을 '직접' 만든다. 손수 고른 12장의 사진으로 달력을 만들고, 인쇄된 종이 도면으로 모형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다. 인쇄물을 만드는 과정을 보고 경험하며 추억까지 쌓을 수 있는 곳, 고양인쇄문화허브센터로 가보자.



인쇄산업 경쟁력 높이는 '허브' 공간

탁상 위에 놓인 달력, 일터에서 인사하며 건네는 명함, 상점 앞에 놓인 입간판 등 우리 일상 곳곳에는 '인쇄문화'가 있다. 고양인쇄문화허브센터가 자리한 일산동구 장항동은 경기도에서 손꼽히는 인쇄단지다. 고양특례시 인쇄기업은 경기도의 18.5%(765개)를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쇄회사가 여기 장항동에 밀집해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9월에는 해당 구역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인쇄 소공인 집적지구'로 선정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2022년 9월 20일, 인쇄 소공인 공동기반시설인 고양인쇄문화허브센터가 문을 열게 되었다. 고양인쇄문화허브센터는 개소 이래 장항동 일대 인쇄 집적지구의 소공인의 협업을 돕는 동시에 고양 인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허브'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업무 시설이 부족한 인쇄 소공인들에게 공간과 장비를 제공하는 한편, 업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고양인쇄문화허브센터는 소공인(小工人,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중심으로, 고양특례시에 소재하고 인쇄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지원하도록 특화된 센터다.



주소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139-6(장항동)
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점심시간 12:00 ~ 13:00)
휴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문의 ☎ 031-922-4351